

교회 예배 시 함께 고백하는 신앙고백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사도신경 가장 많이 알려진 신앙고백이자 대부분의 한국 개신교회 예배시 고백합니다.

니케아신조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고자 합의한 신앙고백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정교회 등 세상의 모든 보편교회가 함께 고백합니다.

감리교 교리적선언 한국감리교회만의 신앙고백으로서 한국감리교회 최초의 문서화된 신앙고백입니다.

1. 성령강림 후 제8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 축하합니다. 박소영 청년의 결혼식이 어제 22일에 있었습니다. 이번 주 29일(토)에 Limoges에서 <mariage laïc>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7월 기도회 인도자 안내.
7/23 정원철 집사, 7/30 홍기원 청년, 8/6 신미영 성도, 8/13 김태균 집사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 성서 일과 (성령강림 후 제 9 주)

제1말씀 : 열왕기상 3:5-12

제2말씀 : 로마서 8:26-39

시편교송 : 시편 119:129-136

복음서 : 마태복음 13:31-33, 44-52

예배 봉사 담당자

7월 30일

8월 6일

대표기도 : 공동기도

황유란 집사

제1말씀 봉독 : 김주은 집사

양승희 집사

제2말씀 봉독 :

복음서 봉독 : 집 레 자

집 레 자

7월 예배안내 봉사자 : 정원철 집사

7월 다과 준비부서 : 사회봉사부

안내

예배시간 및 교통편 안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임목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 등록 절차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파리중앙감리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중앙연회 유럽지방 소속입니다.

(Association Culturelle de L'Église Méthodiste Coréenne De Paris)

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에 참석하신 후 새신자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담임목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시간

주일공동예배 : 매주일 오후 2시

예배 후 기도회 : 매주일 예배 후 진행

오시는 길

17 bis, Rue Bayard 75008 Paris

메트로 1, 9호선 Franklin Roosevelt

메트로 1, 13호선 Champs-Élysées Clemenceau

교회 홈페이지 <http://emcp-france.com/>

네이버 카페 : 파리중앙교회, 담임목사 박재현

연락처 : 06 5841 2808, macarius@hanmail.net

2023년 주제 : “새 힘과 소망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요한계시록 21:5)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예배함으로 참 기쁨과 진리를 얻는 예배 공동체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공동체

세상의 영광보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평화를 가꾸는 생활 공동체

오늘의 묵상

사랑받는 자는 꾸준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도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은 성령이 우리의 삶의 기원이 되신다는 의미이고, 성령이 우리 삶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살짝이라도 잊보는 순간 우리는 그 진리의 충만함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진리를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그 정체에 맞는 소명에 마주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은 내가 늘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고, 늘 사랑의 충만함을 발견하려고 씨름하고 있고, 늘 온전한 진리를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이미 나에게 하나님과 사랑과 진리의 첫 맛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 깊은 곳에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순수함에 대한 본원적 기억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 한때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값진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선물이 그 속에 들어있음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적 죽음보다 강한 영적 삶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랑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받는 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내 모든 언행심사에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진리가 배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고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기도의 꾸준한 실천이 요구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음성을 더 오래 더 깊이 듣고 싶은 내면의 갈망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하수를 찾아 파는 작업이 곧 기도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 음성, 곧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 훈련이란 끊임없이 우리 존재의 실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이를 발견하고 그 샘을 찾아 떠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예배 순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표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성령강림 후 제 8 주		집례 : 박재현 목사
개회의 예배		

침묵기도	Temps de Silence et de Recueillement		다함께
개식사	Paroles d'accueil		집례자
✠ 입당송	Cantique	43 장 즐겁게 안식할 날	다함께
✠ 인사	Salutation de paix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님, 우리와 온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소서.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Prière de Repentance et Annonce du Pardon de Dieu		다함께
✠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이신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 (각자) 참회의 침묵 기도를 드립니다.			
✠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5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 경배와 찬양	Cantique	25 장 면류관 벗어나서	다함께
✠ 신앙고백	Confession de Foi	사도신경 (새번역)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송 Psalms du jour	시편 86:11-17 (구약 823쪽)	다함께
영광송 Spotane	3 장 성부 성자와 성령 십자가를 향하여 서십시오	다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 Prière		
		김태균 집사

말씀의 예배		
오늘의 말씀 봉독	요한2서 (2 Jean) 1:4~9 (신약 377쪽)	정원철 집사
요절 (요한2서 1장 6절)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Prédication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	박재현 목사
찬송 Cantique	315 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다함께
봉헌 및 기도 Prière d'offrande	집례자	

폐회의 예배		
교회소식 Annonce	집례자	
결단의 찬양 Cantique	312 장 1절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함께
결단의 선포 Proclamation	교우 여러분, 이제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다함께
축도 Bénédiction	다함께	